이재명 "리박스쿨 댓글 조작은 내란…국힘과 확실한 연관성"

돌봄교사 양성 빙자 댓글조작…국민의힘 실질적 배후 의심
댓글조작은 민주주의 질서에 대한 도전…엄정수사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1일 보수 성향 단체 '리박스쿨'의 댓글 여론 조작 의혹을 강하게 비난했다.

이 후보는 이날 경북 안동시 유세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국민의힘과 무관하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오히려) 확실한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리박스쿨 의혹은 (민주당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일이 터진 것이다. 국민의힘이 그 실체를 부인할 수 있겠나"고 지적했다. 이는 '국민의힘은 해당 의혹과의 연관성을 부인하면서 오히려 민주당이 대선 공작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이 후보는 "리박스쿨에서 돌봄교사 양성을 빙자해 자격증을 엉터리로 주며 댓글을 쓰게 했다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그 행위를 과연 누구 때문에 했으며, 그 행위가 누구에게 이익이 됐는지를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칭찬하고 이재명 후보를 비방하면서 허위사실을 유포해 정치적 공격을 가한 것으로, 그 이익은 고스란히 김 후보와 국민의힘이 취했다.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과 (리박스쿨 관련자들이) 엉터리 회견도 하지 않았나"라고 꼬집었다.

이 후보는 "그 이익이 귀속된 국민의힘의 전력을 보면 국민의힘이 (의혹의) 실질적 배후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과거 '십알단(십자군 알바단)'이라고 있지 않았나. 또 국가기관을 동원한 '국정원 댓글 조작'도 있었다. 댓글조작의 DNA를 가진 게 국민의힘"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엉뚱한 얘기를 끌어들여 허수아비를 만들어 공격하는 게 국민의힘의 전형적인 전략"이라며 "(이런 의혹에 대해) 그들이 설명해야 하지 않나. 뜬금없이 다른 얘기를 하지 말고 본질적인 얘기를 해야 한다. 리박스쿨과의 관계를 분명히 밝히기를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후보는 유세 직전 진행한 유튜브 '오마이TV'와의 인터뷰에서도 이번 의혹을 겨냥해 "민주주의 질서에 대한 도전으로, 헌정질서를 파괴한 내란 행위"라며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후보는 '대선에서 승리한다면 이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국민을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라는 취지의 질문에는 "저는 제 실력을 성과로 증명하면서 지금까지 왔다"며 "국정을 지금보다 몇 배는 잘해 더 나은 세상을 보여드리고 지지를 얻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실력이 없고 충성심이 없으면 결국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국민을 편가르고 거기에 의지해 상대를 탄압하고, 심지어 국민끼리 싸우고 혐오·증오하게 한다. 그게 국민의힘의 정치 행태"라며 "이런 나라는 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는 자신도 있고 실력도 증명해온 만큼 굳이 편을 갈라 일부에 의지하고 남은 일부를 탄압하는 정치를 할 필요가 없다"며 "상대들이 비록 저질스럽게 편을 짜고 음해하고 조작을 하더라도 우리는 작은 차이를 넘어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위대한 국민의 저력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며 "저는 '반통령'이 아닌, 대통합을 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사전투표함 CCTV로 실시간 확인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이틀 앞둔 1일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가 관내사전투표함 보관장소 CCTV를 확인하고 있다. /특별취재단=나명주기자mjna@kwangju.co.kr

이준석 "완주 결승선 눈앞" 대구서 마지막 유세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1일 "완주 결승선이 눈앞에 다가왔다"며 "이제 본투표를 통해 이 선거를 완성하겠다. 대한민국의 희망을 지키는 의미 있는 고지를 반드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완주하지 못할 것이라는 조롱과 비아냥, 양당 기득권 세력의 어마어마한 협공을 뚫고 저는 오늘까지 달려왔다"며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끝내 이겨내며 여기까지 온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적었다.

이 후보는 "젊은 세대의 목소리가 살아 있는 정치를 만들겠다는 꿈, 양당 기득권 구조에 결코 굴하지 않는, 작더라도 단단한 정치 진영을 세우겠다는 시대정신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펼쳐질 세상은 그가 지금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보여준 방식 그대로"라며 "자신에게 반대하는 세력은 철저히 짓밟고 젊은 세대의 마지막 희망까지 질식시키며 1인 천하를 완성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 세상이 두렵다면 이재명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세력으로 저 이준석과 개혁신당을 키워달라"며 "이번 선거에서 저희가 일정한 지지선을 확보해야 대한민국이 한쪽으로 완전히 기우는 것을 막고 희망의 불씨를 다시 피워올릴 수 있다"고 호소했다.

이 후보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애초에 그들은 계엄의 원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이번 선거에서도 민주당의 샌드백, 장난감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낡은 정치의 무대 위에서 젊은 목소리가 더욱 크게 울려 퍼질 수 있도록 끝까지 뜨거운 응원과 지지를 부탁드린다"며 "당신의 한 표가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위한 확실한 투자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날 지역구인 경기 화성시 동탄호수공원에서 유권자들을 만난 뒤 서울 중구 서울역 일대에서 집중 유세를 벌인다.

본투표일 하루 전인 2일에는 '보수 심장'인 대구에서 마지막 유세를 하며 공식 선거운동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김문수 "여러분의 한 표만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수 있다"

"공무원은 깨끗해야 존경"

6·3 대선을 이틀 앞둔 1일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두고 "감옥 갈 사람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면 이 나라가 범죄 꾸러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이날 경기 수원·성남 유세에서 "여러분의 한 표만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수 있고, 정의로운 민주주의를 만들 수 있다"며 "죄를 많이 지은 사람. 이런 사람이 대통령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래서 국민이 과연 살 수 있겠나"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인제·임창열·손학규·남경필 전 경기도지사를 거론하며 "이 후보 한 명만 빼고, (역대) 경기도지사였던 분들이 전부 저를 밀어준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이유는 간단하다"며 "저는 절대 공직을 이용해 법인카드를 마구 잘못 쓴다든지, 부인이 잘못 쓴다든지…(그런 것이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후보 아들 동호 씨의 인터넷 댓글 논란과 관련해 "욕하는 것을 보지 않았나. 입에 담지도 않겠다"며 "(제 딸이) 그런 해괴망측한 욕을 하거나 도박해서 문제가 되거나 그런 것이 없다"고 했다

김 후보는 또 "공무원은 깨끗해야지만 존경받을 수 있다"며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장 더러운 물, 가장 위험한 독소를 가진 물을 저 위에, 대통령이라는 제일 윗물에 갖다 놓으면 아랫물이 독약을 먹고, 더러운 것을 먹고 살 수 없지 않나"라고 이 후보를 비난했다.

김 후보는 "(이 후보는) 지금 가장 위험하고, 가장 탁하고, 가장 추악하다"라며 "본인만이 아니라 아내까지도 지금 법인카드 때문에 유죄 판결을 받았고, 아들까지도 도박 때문에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대만계 미국 기업가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대만 정부에 탈원전 정책 재고를 공개 요구한 것을 인용, "원전은 가장 값이 싸고 안전한 것인데, 탈원전해서는 AI(인공지능)를 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호남 높은 사전 투표율은 위기감에 대한 반증"

국힘 전남선대위 "대역전극 보여"

국민의힘 전남선거대책위원회가 1일 "호남의 높은 사전 투표율은 위기감에 대한 반증"이라고 평가했다.

국힘 전남선대위는 "전통적 민주당 지지층이 많은 호남에서 사전 투표를 통해 조기 결집에 나섰다는 것은 이재명 후보가 위기에 놓였다는 불안 심리의 반영일 수 있다"고 자평했다.

국힘 전남선대위는 본 투표를 이틀 앞두고 김문수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대역전극의 조짐 3가지가 엿보인다고도 했다.

국힘 전남선대위는 "유시민의 '고졸 비하' 발언은 여성 표의 분노를 확산시켰다"며 "김문수의 노동자 출신, 성실한 삶이 상대적으로 빛나면서 서민·여성·비정규직 등에게 정서적 지지를 상승시켰다"고 밝혔다.

이어 "'젓가락' 발언 논란은 이준석 효과를 제한적으로 묶어 두면서 중도층의 김문수 지지로의 재편성에 유리해졌다"고도 했다.

국힘 전남선대위는 또 선관위의 부실한 선거 관리 실태가 보수층의 분노를 자극해 보수 유권자의 결집을 촉발시키고 본투표 의지를 강화시켰다고도 했다. /특별취재단=김민석 기자 mskim@

황교안 사퇴…김문수 지지

무소속 황교안 대선 후보는 1일 후보직 사퇴 및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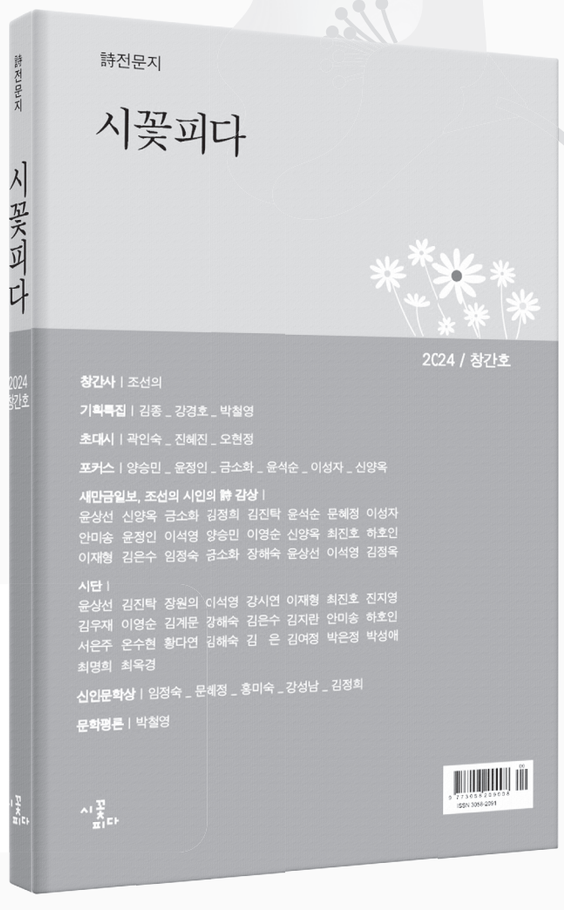
황 후보는 이날 한 유튜브 방송에서 "마지막 힘을 총집결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김문수 후보를 돕겠다. 김 후보가 하는 일을 지지하겠다"며 "사퇴하고 김 후보를 도와서 반드시 정권을 지켜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저는 이제 마지막 남은 한 가지 과제가 부정 선거를 막는 일"이라며 "다행히도 김 후보는 부정 선거를 고치겠다고 하는 것을 공약한 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반국가 세력과 싸울 수 있는 후보도 김 후보"라고 부연했다. /연합뉴스

"시를 꽃처럼 피워 주변을 시꽃으로 밝히고 싶습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고 사람 때문에 상처 받아도
시가 만나야 할 궁극적인 대상은 사람입니다.

조선의 시인
문예지 '시꽃피다' 창간

조선의 시인

농민신문신춘문예 당선, 기독신춘문예 당선, '미션21' 신춘문예에 당선,
상상인 작품상, 송순문학상, 김만중문학상, 거제문학상, 신석정촛불문학상 등 수상.
『아직 도달하지 않은 입의 문장』『빛을 소환하다』『꽃 향기의 밀서』,『꽃으로 오는 소리』 등 발간.
〈시꽃피다〉 광주 시창작 강사, 〈시꽃피다〉 전북지역 시창작 강사, 서울 성동구 평생교육원 시창작 강사, 담양문화원 시쓰기 강사